

## 성인 미혼 커플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관계적응: 성인애착과 관계욕구충족의 매개효과

안 하 안

서 영 석<sup>†</sup>

연세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 및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연인의 관계적응 간 관계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관계욕구충족이 순차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커플 간 상호작용을 규명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30대 미혼 커플 148쌍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구조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남자는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에서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애착회피에서 관계욕구충족과 관계적응, 관계욕구충족에서 관계적응의 직접 경로에서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 성인애착과 관계욕구충족, 관계욕구충족과 관계적응의 직접경로에서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애착회피는 남성의 관계욕구충족과 관계적응에 직접적으로 부적,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애착회피, 관계욕구충족을 거쳐 관계적응으로 가는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실제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주요어 :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성인애착, 관계욕구충족, 관계적응,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

<sup>†</sup> 교신저자 : 서영석, 연세대학교 교육학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Tel : 02-2123-6171, E-mail : seox0004@yonsei.ac.kr

아동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의 삶을 시작하는 만 20세부터 성인기의 삶을 본격적으로 영위하는 만 40세까지의 시기를 성인전기라고 한다(Levinson, 1986). 성인전기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감을 확립하고 독립된 사회인으로서의 성숙을 이루며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기로서, 이 시기의 가장 중대한 과업은 일과 사랑이라 할 수 있다(Erikson, 1963). 특히, 이성과 친밀감을 형성한 미혼 남녀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며, 이러한 경험은 이후 결혼생활이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험적 연구들에서 성인전기의 이성교제 경험과 만족도는 실제 결혼 생활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홍대식, 2005; Kelly, Huston, & Cate, 1985), 연애결혼 한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중매결혼 한 부부의 결혼만족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민녀, 2003). 또한 원만한 이성교제 경험은 이성애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 아니라 성숙한 인격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유익을 제공해 주는 반면(Uoyd & Cate, 1985), 원만하지 못한 이성교제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raithwaite, Delevi, & Fincham, 2010; Koball, Moiduddin, Henderson, Goesling, & Besculides, 2010; Whitton & Kuryluk, 2012). 이처럼 성인전기 이성 관계 경험은 개인의 건강과 좋은 배우자 선택, 이후 결혼 생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혼 남녀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 초기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 형성과 유지를 촉진하는 메커니즘을 밝힌 국내연구는 기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성장의 핵심을 관계로 보고,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애착이론 및 관련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연인의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련성을 가설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각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 성인기 애착패턴 및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어떤 구조적 관련성을 맺으면서 미혼 커플의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연인의 상호역동적인 측면을 반영하기 위해,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이하 APIM)을 적용하여 연인의 짝자료(dyadic data)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성인기 관계적응

정서학대(emotional abuse)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한 개인의 행동 및 정서 기능, 전반적 안녕감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 패턴으로서 언어폭력, 협박과 위협, 모멸과 비하, 거절과 애정거부, 고립, 과도한 통제 등을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후 삶에서 우울, 불안, 섭식장애, 공격성, 자살행동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한다(Bifulco, Moran, Baines, Bunn, & Stanford, 2002; Cassidy & Mohr, 2001; Ferguson & Dacey, 1997; Messman-Moore & Coates, 2007). 아동은 발달 초기 부모와의 애착관계 내에서 상호 신뢰하는 법, 돌봄을 주고받는 법, 상대방을 공감하고 친밀해지는 법을 발달시킨다(Collins & Sroufe, 1999). 만일 이 시기에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힘들어 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부적절하고 수치스러우며 피해를 입었다고 지각하고, 타인을

잔인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며, 더 나아가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에 대해 왜곡된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Riggs, 2010). 결국,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는 이후 삶에서의 낮은 자존감, 정서 조절 장애 및 충동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Mullen, Martin, Anderson, Romans, & Herbison, 1996; Showers, Zeigler-Hill, & Limke, 2006; Wenar & Kerig, 2000; Widom, Kahn, Kaplow, Sepulveda-Kozakowski, & Wilson, 2007). 정서적 학대 경험과 이로 인한 불안정 애착 형성은 결국 부적응적인 대인관계 도식 형성으로 이어지고,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불안정성을 유발하게 된다. 즉, 발달 초기 경험한 정서적 학대는 성인기 불안정 애착 형성 및 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다(김진화, 2010; 이태영, 심혜숙, 2011; 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Messman-Moore & Coates, 2007). 실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 장면에서 만나게 되는 많은 내담자들은 어린 시절 주요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기 학대 경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후 삶에서의 부적응으로 연결되는지를 연구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Wright, 2007).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을 토대로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가 이후의 삶, 특히 성인기 관계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 정서적 학대 경험과 애착

애착이론을 주창하고 체계화한 Bowlby(1980)는 발달 초기에 형성된 관계도식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 부분 지속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정서 조절 및 대인관계 방식에 영향을 주는 초기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이 이후에 형성될 작동모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경험적인 연구에서도 초기 양육자와 안정된 유대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이 또래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나선영, 안명희, 2011; Cassidy & Mohr, 2001), 부모나 또래와의 안정된 애착관계 경험은 성인기의 적응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범혁, 정영숙, 2007; 조화진, 서영석, 2010;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Rice, Lopez, & Vergara, 2005). 아동기 정서학대의 발달적 추이를 모델화한 Riggs(2010) 역시 발달 초기 정서적 학대로 인해 형성된 불안정 애착은 이후 아동·청소년기의 원활한 사회적 기능을 방해하고, 또래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기 애착체계까지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성인애착 이론가들은 발달 초기에 형성된 애착이 이후 성인기 애착체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성인의 애착을 이야기할 때 부모-자녀 관계에만 초점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성장함에 따라 애착 대상은 부모뿐 아니라 친구, 애인, 배우자, 자녀 등으로 다양해질 수 있고, 대상에 따라서도 다른 애착패턴을 보일 수 있으며(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Lewis, Feiring, & Rosenthal, 2000), 특히 성인이 되면 애착행동과 관심이 연인에게로 옮겨지고 성관계의 맥락 안에서 근접성을 추구하게 된다(Stein, Jacobs, Ferguson, Allen, & Fonagy, 1998). 이는 성인의 애착을 연구함에 있어서 애착 측정의 시점을 현재로 옮겨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반영하듯 Brennan, Clark과 Shaver(1998)는 애착과 관련된 성인기 외부세계 또는 타인 표상을 '성인애착'이라 지칭하였고, 이를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두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애착불안은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관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몰두하는 것을 의미하고, 애착회피는 친밀해지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며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불안정할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하얀, 서영석, 2011; 이은지, 서영석, 2014; Lopez & Gormley, 2002; Lopez, Mitchell, & Gormley, 2002; Wei, Shaffer, Young, & Zakalik, 2005).

관계욕구충족: 성인애착과 관계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

애착 연구자들은 성인애착과 대인관계문제/만족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확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Creasey & Hesson-McInnis, 2001; Lopez, Mauricio, Gormley, Simko, & Berger, 2001; Wei, Mallinckrodt, Russell, & Abraham, 2004; Wei, Vogel, Ku, & Zakalik, 2005). 이는 애착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애착체계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일 뿐 아니라, 애착문제를 보이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하나의 안정된 특성으로 형성되어 변화가 쉽지 않은 변인(예, 애착의 질)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입과 수정이 용이한 변인(예, 대처전략)의 존재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성인애착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기존의 연구들은 내담자의 역기능적인 측면들을 확인하고 이에 개입하는 전통적인 상담 접근에 부합하여, 주로 부정응적인 전략들을 매

개변인으로 설정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왔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대처방식에도 기능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담자의 역기능적 대처방식을 수정하려는 상담자의 개입이 과연 모든 상황에서 효율적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요 타인이 자신의 기대(예, 관심, 사랑, 인정 등)에 반응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게 반응할 경우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때 그 사람은 대처전략으로서 과장되고 과잉된 기대를 표현하거나 또는 기존의 기대를 억압하고 회피함으로써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시도할 수 있다(Shaver & Mikulincer, 2002). 즉,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불편한 관계나 상황을 아예 피해버림으로써 거부적인 타인 때문에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러한 대처가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처기제라고 인식되면, 사람들은 이러한 대처를 계속해서 고집하게 된다(Wei, Shaffer et al., 2005). 따라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적응 전략들을 변화시키는 데만 초점을 두고 주력한다면, 상담은 시간적 측면이나 성과적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를 통해, 내담자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치료사의 태도가 내담자의 자율적 동기를 높이고, 우울 증 감소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Zuroff et al., 2017). 이처럼 상담자는 좌절된 심리적 욕구를 상담관계 내에서 충족시킬 뿐 아니라 내담자의 좌절된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욕구 충족의 정당성을 수용하도록 도우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개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애착과 대인

관계 문제(만족)의 관계, 특히 두 변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을 탐색하는 실증적인 연구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Wei, Shaffer 등(2005)도 성인애착과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 관계를 탐색할 때, 역기능적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좌절된 내적 동기(예,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Ryan과 Deci(2017) 역시 지금까지 발전시켜 온 자기결정성 이론과 이를 뒷받침해 온 연구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이를 심리치료에 적용하여 보다 치료적 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 충족을 성인애착과 관계적응 간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채택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선행연구 및 한계점

관계욕구는 일종의 '소속욕구(needs to belong)'로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자 하는 바람이나 확고하고 안정된 친밀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특히, 연인관계에서는 관계욕구의 충족 정도가 관계적응 및 안녕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임이 메타분석을 통해 입증되었다(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 La Guardia, Ryan, Couchman과 Deci(2000)는 안정 애착이 관계욕구를 포함한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반을 제공한다고 강조하면서, 안정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성이 관계욕구충족과 관련이 있고, 또한 욕구충족은 건강한 관계기능과도 정적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소영과 신희천(2007)의 연구에서도, 미혼 커플에게는 다른 기본 심리적

욕구(자율성, 유능성)에 비해 관계욕구충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부각되며,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계욕구충족의 중요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기 외상 경험과 연인의 관계적응 간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는데, 김진화(2010)의 연구에서 아동기 외상 경험은 데이트 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개인의 성인애착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조현정과 이승연(2014)의 연구에서도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현재의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사라지고 역기능적 내적 작동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초기 부적응 도식을 거치는 간접 영향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정서적 외상과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데이트를 하는 가까운 관계에서의 불안) 간 관계를 연구한 김인혜와 송현주(2014)의 연구에서도 반복적 대인 간 외상으로 인해 손상된 자기체계가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어린 시절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외상 경험 자체보다 이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 또는 자기/관계에 대한 도식이 성인기 관계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인기 커플 관계적응에 있어 관계욕구충족의 중요성을 확인하거나 아동기 학대 경험이 어떤 기제를 통해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계욕구충족에 초점을 둔 매개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연인은 두 사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관계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은 채 한 쪽 파트너에게서만 자료를 수집하여 개인 내적인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이 많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를 통해서 연인 간 상호역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성인애착은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욕구충족,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성인애착, 관계욕구충족, 관계적응 간 관계에서는 자기효과 뿐 아니라 파트너에게 주거나 파트너로부터 받는 상대방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파트너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파트너의 행동을 낙관적으로 기대하며, 파트너가 제공하는 지지와 돌봄에 보다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Feeney, 1998; Kane et al., 2007; Mikulincer, 1998; Shaver & Mikulincer, 2002). 따라서 성인기의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구조적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인들의 상호의존성을 고려하여 자기효과 뿐 아니라 상대방효과를 동시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인의 짝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고려해 볼 수 있다(Kenny, Kashy, & Cook, 2006). APIM 사용을 통해 연인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분석할 때 발생하는 방법론적인 문제들(1종 오류나 2종 오류를 심각하게 증가시킴)을 극복할 수 있고, 관계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와 같은 대인 간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Cook & Kenny, 2005; Cook & Snyder, 2005). Riggs, Cusimano와 Benson(2011)은 미혼커플 155쌍을 대상으로 APIM을 활용하여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가 성인애착을 매개로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는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관련이 있었고, 성인애착은 다시 자신 및 상대방의 관계적응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iggs 등(2011)의 연구 모형에서는 성인애착과 관계적응 사이에 어떠한 기제가 작동하는지는 밝히지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형성된 애착은 수정이나 개입이 수월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를 보다 용이하게 도모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IM을 적용하여 커플의 상호의존적 역동을 파악하되, 기본 심리적 욕구 중 관계욕구충족 변인을 추가하여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연인의 관계적응 간 관계에서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이 관계욕구충족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욕구충족이 다시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관련성을 검증하였다[아동기 정서학대 → 성인애착(불안, 회피) → 관계욕구충족 → 관계적응].

본 연구를 통해 각 변인들의 자기 및 상대방 효과를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관계적응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인에 보다 더 초점을 두고 개입하면 효과적일지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는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자기효과).

**연구가설 2:** 남자(여자)의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남자(여자)의 관계적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2-1: 자기효과). 남자(여자)의 성인애착(불안, 회피)은 여자(남자)의 관계적응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2-2: 상대방

효과).

**연구가설 3:** 남자(여자)의 애착불안과 애착 회피는 남자(여자)의 관계욕구충족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3-1: 자기효과). 남자(여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는 여자(남자)의 관계 욕구충족과 부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3-2: 상대방효과).

**연구가설 4:** 남자(여자)의 관계욕구충족은 남자(여자)의 관계적응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4-1: 자기효과). 남자(여자)의 관계욕 구충족은 여자(남자)의 관계적응과 정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4-2: 상대방효과).

**연구가설 5:** 성인애착(불안, 회피)과 관계욕구 충족은 아동기 정서학대와 관계적응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5-1: 자기효과, 5-2: 상대방효과).

## 방 법

###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 연인관계를 지속 해 온 2-30대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우선, 설문지 내 척도 구성에 따 른 순서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형식 (A형, B형)의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반송봉투 를 넣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설문지를 전달 받은 사람 뿐 아니라 그 사람의 파트너 또한 설문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커플에 게는 서로 상의하지 않고 각자 설문지를 작성 한 후 제공된 반송봉투를 밀봉하여 연구자에 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하였 다. 주로 연구자가 지인에게 설문을 부탁하고 그 지인이 다른 지인들에게 설문을 부탁하는 방식, 즉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

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학생의 경우, 상담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 중 참여의사를 밝 힌 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연 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설문 참여를 독려해 줄 것을 부탁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미혼 커플은 총 153쌍 이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296부( $N = 148$ 쌍)의 설문지를 자료 분 석에 사용하였다.

### 연구 대상

참여자 296명 중 남자가 148명(50%), 여자가 148명(50%)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 자 25.55세( $SD = 3.83$ ), 여자 23.91세( $SD = 3.26$ )이었다. 참여자들의 최종 학력은 남자의 경우 대학원 재학 이상 14명(9.5%), 대학 재학 및 졸업 127명(85.8%), 전문대 재학 및 졸업 9 명(6.1%), 고졸 이하 8명 (5.4%) 순이었고, 여자의 경우 대학원 재학 이상 17명(11.5%), 대학 재학 및 졸업 123명(83.1%), 전문대 재학 및 졸업 9명(6.1%), 고졸 이하 13명 (8.8%) 순이었 다. 현재 거주 지역(남녀 전체)은 서울 205명 (69.3%), 인천 및 경기도 73명(24.7%), 강원 9명 (3.0%), 충청 5명(1.7%), 전라 2명(0.7%)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평균 교제기간은 23.22개월( $SD = 21.01$ )이었다.

### 측정 도구

####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아동기 정서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Bernstein과 Fink (1998)가 개발하고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와 하지현(2009)이 타당화한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Korean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K-CTQ)를 사용하였다. K-CTQ는 정서학대,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방임, 신체방임과 관련된 25개 문항과 타당도 척도(Minimization/Denial Scale)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아니다, 5 = 항상 그랬다)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 중 정서학대에 해당되는 5문항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K-CTQ는 부모-자녀 갈등, 심리적 부적응과 정서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서학대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3으로 나타났다(유재학 등, 2009). 유재학 등(2009)의 연구에서 K-CTQ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79, 정서학대는 .80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정서학대의 내적일치도는 .62로 나타났다.

#### 성인애착

참여자들의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김성현(2004)이 타당화한 친밀관계경험검사 개정판(ECR-Revised: ECR-R)을 사용하였다. ECR-R은 Fraley, Waller와 Brennan(2000)이 문항반응이론을 활용하여 Brennan 등(1998)에 의해 개발된 친밀관계경험검사(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Questionnaire)를 개정한 것이다. ECR-R은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2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불안은 상대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을, 애착회피는 상대방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차원은 18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수준이 높고,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이 번안 및 타당화한 ECR-R은 '불특정한 사람들(others)'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나(예,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Brennan 등(1998)이 제작한 원 검사에서와 같이 '사귀는 사람(romantic partner)'을 떠올리며 응답하도록 하였다(예, "사귀는 사람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 편이다"). 선행연구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ECR-R의 2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을 확인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애착불안이 .68-.93, 애착회피가 .71-.95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현, 2004; Fraley & Waller, 1998; Lopez & Gormley, 2002). 김성현의 연구에서 문항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애착불안이 .89, 애착회피가 .8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애착불안이 .88, 애착회피가 .92로 나타났다.

#### 관계욕구충족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개발된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 척도(The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Scale-general version: BPNS, Deci & Ryan, 2000; Gagné, 2003)를 이명희와 김아영(2008)이 한국형으로 타당화한 BPNS 사용하여 참여자들의 관계욕구충족을 측정하였다. 한국형 BPNS는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세 개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하위 차원 중 '관계성(relatedness)' 차원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관계성 욕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이해와 돌봄을 받거나 유대감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욕구를 의미하며,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욕구

충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래 BPNS는 불특정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예, “나는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본 연구에서는 사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을 평정하도록 문항을 수정하였다(예, “나는 사귀는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낀다”). 이명희와 김아영(2008)의 연구에서 한국형 BPNS의 3요인구조가 적절함을 확인하였고, 기본 심리 욕구 충족과 심리적 안녕감( $r = .38-.51$ ), ‘관계성’ 하위 요인과 교사/친구/부모와의 관계적응 척도 간 관계( $r = .39-.73$ )가 모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희와 김아영의 연구에서 한국형 BPNS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87, 관계성 내적일치도는 .79로 각각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관계성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90으로 나타났다.

### 관계적응

연인과의 관계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usby, Christensen, Crane과 Larson(1995)의 개정된 관계적응 척도(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RDAS)를 최성일(2004)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RDAS는 Spanier(1976)의 관계적응 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DAS)를 Busby 등(1995)이 재구성한 것으로 일치, 만족, 응집의 3개 영역, 총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성일(2004)은 부부를 대상으로 척도를 타당화 하였기 때문에 문항의 내용이 결혼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 커플에게 적합하도록 문항의 표현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일치’는 커플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 일치 정도를 의미하며 가치관, 의사결정, 종교 등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6

점 척도(1점 = *항상 불일치*, 6점 = *항상 일치*)로 평정한다. ‘만족’은 현재 커플 관계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말다툼 빈도, 커플 관계에 대한 후회 등 관계 안정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등을 6점 척도(1점 = *언제나 그렇다*, 6점 = *전혀 그렇지 않다*)로 평정한다. 마지막으로 ‘응집’은 커플이 어떤 활동에 같이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파트너의 관심사나 취미 활동 등을 얼마나 공유하는지를 5점 척도(1점 = *전혀 함께 하지 않는다*, 5점 = *모두 함께 한다*)로 측정하고, 서로 생각을 교환하고 함께 일을 추진하는 정도를 6점 척도(1점 = *전혀 없다*, 6점 = *하루에 한 번 이상*)로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척도의 문항 평균을 토대로 측정변인을 구성하였다. 최성일(2004)의 연구에서 RDAS는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권정혜, 채규만, 1998), 캔사스 결혼만족도 검사(김득성, 1989)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RDAS의 전체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79로 나타났고, 일치 .66, 만족 .75, 응집 .79로 각각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가 제안한 항목 묶기(item parceling)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모수의 수를 줄이면서 잠재변인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정서학대, 성인애착의 두 차원, 기본심리욕구 하위 차원 중 관계성 변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을 항목 합산하여 각 변인마다 새로운 지표를 생성하였다. 요인부하량에 따른 항목합산을 하기 위하여, 먼저 각 변인에 대해 요인 수를 1로 지정한 후 최

대우도법을 사용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지표에 속하는 문항들의 요인부하량 평균이 같도록 문항꾸러미를 제작하였다. 또한 연인의 짝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Kenny (1996)가 제안한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을 적용하였다. 특히, 연인과 같이 짝 내 구성원들의 값이 구분 가능할(distinguishable dyad) 때 구조방정식은 APIM을 추정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분석법으로 알려져 있다(Kenny et al., 2006). 이에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을 사용했던 Riggs 등(2011)의 연구와는 달리,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직간접 경로에 대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AMOS 18.0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chi^2$  값뿐만 아니라 CFI, TLI, RMSEA를 사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효과 값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의 개별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검증을 실시하였다.

####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의 활용

APIM은 짝 관계(dyad)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방법으로,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자료를 분석할 때 활용한다(Cook & Kenny, 2005). 일반적으로 상호성이란 이자관계에서 한쪽의 반응에 따라 상대방이 대응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예, 호감), 행동(예, 도움), 지각(예, 판단) 등을 주고받는 가운데 자주 나타난다(박영화, 고재홍, 2005). 짝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를 선택할 때 이미 사회경제적 요인, 관계 가치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인관계를 지속한 커플의 경우,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한 개인의 특성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영향에 공동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반응 또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자료가 비독립적일 때 개인을 분석 단위로 사용할 경우에는 1종 오류나 2종 오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Cook & Synder, 2005; Kenny, 1996). 또한 관계 내에서 누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와 같은 대인간 역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을 잃게 된다(Cook & Synder, 2005). 따라서 상호의존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짝 자료를 분석할 경우, 자료가 지닌 최대한의 정보를 추출해 내면서도 통계적 오류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식, 즉 APIM이 적합하다. APIM을 적용할 경우 분석의 단위는 짝이 되고, 외생변인과 매개변인을 포함한 내생변인의 오차 간 상관을 가정한다(Ledermann, Macho, & Kenny, 2011). 또한 남녀 자료를 합한 값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표준화한 각 남녀의 값이 자료 분석에 사용된다(Kenny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PIM을 활용하여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성인애착과 관계욕구충족을 거쳐 관계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에서 변인들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검증하였다.

## 결 과

###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그리고 변인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개념적 유사성이 존



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관계욕구충족'과 관계적응 하위 요인 중 '만족'의 평균을 토대로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그 값이 2.03에서 4.70 사이에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부분의 측정변인들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았지만, 'Ac정서학대 2'와 'Pa정서학대 1'은 기준점을 넘어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가설검정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자료가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한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는 자료로 검증할 경우 모델의 적합도나 개별 모수에 대한 유의성 검증시  $\chi^2$  값이 크게 추정되거나 표준오차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배병렬, 2017). 이때, 보다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한 자료 처리 방법이 권장된다(Nevitt & Hancock,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추정치를 도출하였다.

#### 측정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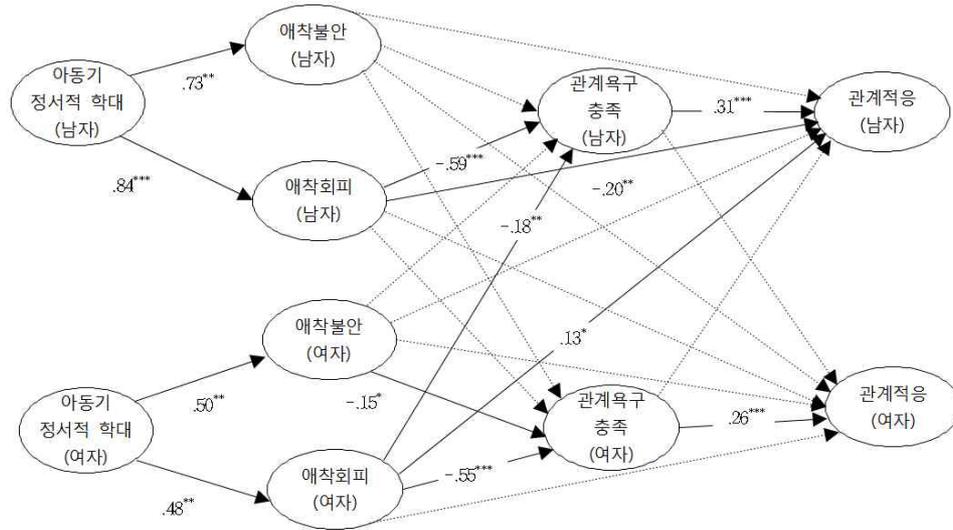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남녀의 아동기 정서적 학대, 애착불안, 애착회피, 관계욕구충족, 관계적응의 28개 측정변인들이 10개의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01, N = 148) = 500.63, p < .001$ ; CFI = .93; TLI = .91; RMSEA = .067, 90% 신뢰구간 {CI} = .06, .08. 또한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에 .54에서 .96까지 적재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결과, 연구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314, N = 148) = 519.63, p < .001$ ; CFI = .93; TLI = .91; RMSEA = .067, 90% 신뢰구간 {CI} = .06, .08. 직접경로 계수들을 살펴보면(그림 1), 우선 남녀 모두 정서학대 경험은 자신의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자기효과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다. 둘째,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남자의 애착회피만이 남자 자신의 관계적응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자기효과)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여자의 경우, 애착불안과 회피 모두 여자 자신의 관계적응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고, 가설과 달리 여자의 애착회피는 남자의 관계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자기효과)과 2-2(상대방효과)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남자의 애착회피만이 남자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과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1(자기효과)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또한 여자의 애착불안과 애착회피 모두 여자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과 부적인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여자의 애착회피는 남자의 관계욕구충족과도 부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 자기효과에 대한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가설 3-2, 상대방효과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넷째,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관계욕구충족은 자신의 관계적응과 정적인 관련이



주.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는 점선으로 표시하였음. 제시한 경로계수는 비표준화 계수임.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1. 구조모형 경로계수

있으나 상대방의 관계적응과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 5-1(자기효과)만 지지되었다.

남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난 직접경로 계

수들이 남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가제약을 가해 검증하였다(표 2 참조): (1)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애착불안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 (2)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표 2. 기본모형과 등가제약모형 간 차이 검증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chi^2$ 차이검증
기본모형	519.63	314	.93	.91	.07	
등가제약 1						
정서학대 <sub>Ac(Pa)</sub> → 애착불안 <sub>Ac(Pa)</sub>	520.17	315	.93	.91	.07	$\chi^2(1) = .54, p > .05$ .
등가제약 2						
정서학대 <sub>Ac(Pa)</sub> → 애착회피 <sub>Ac(Pa)</sub>	521.02	315	.93	.91	.07	$\chi^2(1) = 1.39, p > .05$ .
등가제약 3						
애착회피 <sub>Ac(Pa)</sub> → 관계욕구충족 <sub>Ac(Pa)</sub>	519.76	315	.93	.91	.07	$\chi^2(1) = .13, p > .05$ .
등가제약 4						
관계욕구충족 <sub>Ac(Pa)</sub> → 관계적응 <sub>Ac(Pa)</sub>	519.80	315	.93	.91	.07	$\chi^2(1) = .17, p > .05$ .

주. Ac = 남자; Pa = 여자.

이 애착회피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 (3)애착 회피가 관계육구충족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 (4)관계육구충족이 관계적응에 미치는 자기효과 비교. 분석 결과, 네 개 등가제약 모형 모두 기본 모형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 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 성인애착, 관계육구충족의 매개효과

AMOS에서는 이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 값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obel 검증을 활용하여 개별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배병렬, 2017). 우선, 남자의 경우 직접경로에서 상대방효과는 유의미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간접 효과 분석 시 자기효과만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애착회피와 관계육구충족을 거쳐 가는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A_c$  아동기정서학대  $\rightarrow A_c$ 애착회피  $\rightarrow A_c$ 관계육구충족  $\rightarrow A_c$ 관계적응,  $A_c =$  남자)(표 3 참조). 남자의 관계적응에 대한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의 직접경로가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남자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관계적응 간 관계는 남자의 애착회피와 관계육구충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가설 5-1(자기효과)을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여자의 경우 직접경로에서 자기효과 뿐 아니라 상대방효과에서도 유의미한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간접효과 검증 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자기효과에서는 여자 역시 애착회피와 관계육구충족을 거쳐 가는 이중매개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_a$  아동기정서학대  $\rightarrow P_a$ 애착회피  $\rightarrow P_a$  관계육구충족  $\rightarrow P_a$ 관계적응,  $P_a =$  여자). 여자의 관계적응에 대한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

의 직접 경로가 없는 것을 고려했을 때, 여자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관계적응 간 관계는 여자의 애착회피와 관계육구충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대방효과에서는 ' $P_a$  아동기정서학대  $\rightarrow P_a$ 애착회피  $\rightarrow A_c$  관계육구충족  $\rightarrow A_c$ 관계적응'의 이중매개 경로를 각각 검증하였으나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 = -1.84$ ;  $p < .10$  수준에서는 유의).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 5-1(자기효과)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으나, 가설 5-2(상대방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애착이론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연인의 관계적응 간 관계를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관계육구충족이 매개하는 인과적 구조 모형을 설정하고, 148쌍의 성인 미혼 커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들의 직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때 자기-상대방 상호의존 모형(APIM)을 적용하여 남자와 여자의 성인애착 및 관계육구충족이 자신의 관계적응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계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와 시사점, 연구의 제한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자신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자신의 성인 애착불안, 애착회피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가 불안정 애착 형성 및 성인기 관계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

표 3. 직접효과, 간접효과, 자기효과, 상대방효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Sobel Test(z)
직접 효과	자기 효과	Ac아동기정서학대 → Ac애착불안	.73**	-
		Ac아동기정서학대 → Ac애착회피	.84***	-
		Ac애착불안 → Ac관계육구충족	-.04	-
		남 Ac애착회피 → Ac관계육구충족	-.59***	-
		Ac애착불안 → Ac관계적응	.05	-
		Ac애착회피 → Ac관계적응	-.20**	-
		Ac관계육구충족 → Ac관계적응	.31***	-
	여	Pa아동기정서학대 → Pa애착불안	.50**	-
		Pa아동기정서학대 → Pa애착회피	.48**	-
		Pa애착불안 → Pa관계육구충족	-.15*	-
		Pa애착회피 → Pa관계육구충족	-.55***	-
		Pa애착불안 → Pa관계적응	-.01	-
		Pa애착회피 → Pa관계적응	-.08	-
		Pa관계육구충족 → Pa관계적응	.26***	-
상대방 효과	남	Ac애착불안 → Pa관계육구충족	.01	-
		Ac애착회피 → Pa관계육구충족	-.02	-
		Ac애착불안 → Pa관계적응	.06	-
		Ac애착회피 → Pa관계적응	-.11	-
		Ac관계육구충족 → Pa관계적응	-.03	-
	여	Pa애착불안 → Ac관계육구충족	.10	-
		Pa애착회피 → Ac관계육구충족	-.18**	-
		Pa애착불안 → Ac관계적응	-.06	-
		Pa애착회피 → Ac관계적응	.13*	-
		Pa관계육구충족 → Ac관계적응	.14	-
간접 효과	자기 효과	남 Ac아동기정서학대 → Ac애착회피 → Ac관계육구충족 → Ac관계적응	-.15*	-2.49
		여 Pa아동기정서학대 → Pa애착불안 → Pa관계육구충족 → Pa관계적응	-.02	-1.57
	상대방 효과	여 Pa아동기정서학대 → Pa애착회피 → Pa관계육구충족 → Pa관계적응	-.07*	-2.11
		여 Pa아동기정서학대 → Pa애착회피 → Ac관계육구충족 → Ac관계적응	-.03	-1.84

주. Ac = 남자; Pa = 여자. \*  $p < .05$ . \*\*  $p < .01$ . \*\*\*  $p < .001$ .

다(김진화, 2010; 이태영, 심혜숙, 2011; Davis et al., 2001; Messman-Moore & Coates, 2007; Riggs et al., 2011).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애착형성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이로 인한 부적응적 대인관계 도식 형성이 친밀한 또래 관계 형성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후 성인기 애착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불안정성을 유발한다는 이론적 주장(Collins, Guichard, Ford, & Feeney, 2004; Riggs, 2010)을 지지한다.

둘째, 남자의 경우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애착회피만이 자신의 관계적응에 부적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역시 애착회피가 관계욕구충족을 통해 자신의 관계적응에 간접적으로 부적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친밀해지는 것을 꺼리고 불편해 하며 상대방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연인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이 덜하고 관계에 적응하는 것 또한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애착회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억제하고 상대방과의 거리를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거절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안하얀, 서영석, 2010; Fraley & Shaver, 1997; Mikulincer & Orbach, 1995; Shaver & Mikulincer, 2002; Woodhouse & Gelso, 2008).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애착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개방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연인관계에서 건강하게 적응할 가능성이 적음을 시사한다.

셋째, 예상과 달리 여자의 애착회피 성향이 강할수록 남자가 연인관계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한 최바울 등(2013)의 연구와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두 연구에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연구에 참여한 커플들의 평균 교제기간이 달랐기 때문일 수 있다. 즉, 최바울 등의 연구에서는 커플의 평균 교제기간이 18.06개월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평균 23.22개월로 참여자들의 교제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 일반적으로, 연인들의 교제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정도는 줄어드는 반면(Huston, Caughlin, Houts, Smith, & George, 2001), 관계에서의 갈등은 증가한다(Stafford, Kline, & Rankin, 2004). 한편,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남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Endler & Parker, 1990; Matud, 2004). 이때 애착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연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정서를 처리하려고 한다(Simpson & Rholes, 2012). 따라서 애착회피 성향이 강한 여성일수록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차단하고 파트너로부터 떨어져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성의 애착회피 성향은 비록 그것이 부적응적인 대처방식이라 할지라도 남성 파트너가 문제해결에 필요한 심리적·물리적 공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상대적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래된 연인관계에서 정서적 거리를 두는 여성의 회피적 애착패턴이 남성의 관계적응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가치관 등의 일치성을 확인하는 ‘일치’, 관계 안정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 등의 ‘만족’, 관심사나 활동의 공유 정도를 묻는 ‘응집’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한 반면, 최바울 등(2013)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관계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파트너가 자신의 기대나 바람을 충족시켜주었는지, 파트너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운지 등 관계 전반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가치나 결정 사항에 대해 얼마나 의견이 일치하는지, 특정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특정 활동을 얼마나 자주 함께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단일요인 척도는 문항 수가 적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이 개괄적이어서 응답자가 일반적인 느낌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계적응과 관련된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를 물었던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성인애착의 두 차원 중 남자는 애착회피가, 여자는 두 차원 모두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과 부적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자는 상대방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자는 애착회피가 남자의 관계욕구충족에 부적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성격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관계에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여러 사람과 조화롭게 화합하는 등 관계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의 애착회피적 성향은 우리문화에서는 특히 바람직하지 않게 간주되는 성격특성일 가능성이 높다(최바울 등,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여성이 친밀한 관계를 피하거나 멀리할수록 남성 파트너의 관계욕구충족이 감소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남녀 모두 자신의 관계적응은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과 정적 관련이 있었으나 상대방

의 관계욕구충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인관계에서 상대 파트너의 관계욕구가 많이 충족될수록 나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관계만족 간 관계 역시 강할 뿐 아니라 갈등을 덜 경험하고 덜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선행연구(Patrick et al., 2007)와 일치하지 않는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연구 참여자들이 연인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욕구 충족을 더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미혼 커플은 대부분이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2-30대였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우영지, 이기학, 2011; 허재홍, 2009), 본 연구 결과는 이 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관계에서의 역할보다는 타인과 구분되는 자신의 특성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연인관계에 영향을 미쳐 상대방보다 자신의 욕구충족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욱이, 경제적 어려움과 성취에 대한 극심한 압박 등으로 인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특히 관계 내 상대방을 고려할 여력이 없는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본 연구에 반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관계욕구충족의 순차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남녀 모두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과 관계적응 간 관계를 애착회피와 관계욕구충족이 완전매개하는 자기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어린 시절 주양육자로부터 애정 부재, 돌봄 소홀, 극심한 거절이나 통제, 위협 등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을 경우, 성인기 연인관계에서 애착 욕구를 부정하고 상대방에게 의존하거나 가까이 가지 못하며, 이는 관계 내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

는 관심과 사랑, 도움 등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험으로 이어져, 결국 연인의 관계적응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성인기 애착과 관계욕구충족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난 것은, 어린 시절에 겪은 외상 경험 자체보다 이후 영향을 받아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이나 관계도식이 성인기 관계적응을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예, 김인혜, 송현주, 2014; 김진화, 2010; 조현정, 이승연, 2014)과 맥을 같이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애착회피의 영향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애착회피가 애착불안에 비해 낭만적 관계에서의 관계만족 및 헌신(commitment)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메타분석 연구결과(Hadden, Smith, & Webster, 2014)와 유사하다. 결국, 본 연구 결과는 자신의 통제력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파트너와 거리를 두는 회피적 성향이 관계 내에서 심리적, 정서적 욕구 충족을 방해하고 관계적응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상담실제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과 관계욕구충족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관계를 주요 호소문제로 제기하는 내담자(개인, 커플)를 상담할 때 내담자의 성인애착과 관련된 행동패턴과 관계욕구충족에 초점을 두고 상담의 목표와 개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남녀 모두 애착회피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욕구충족과 관계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담자가 연인관계에서 보이는 내담자의 애착회피 행동패턴, 즉 상대방과 심리적, 정서적 거리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억누르는 회피적 행동이 궁극적

으로는 관계에서의 욕구충족을 방해하고 연인과의 관계 적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내담자가 파트너와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거리를 두는 행동을 지속한다면, 상담자는 특히 내담자가 그러한 행동을 지속하는 이면의 두려움과 목적(즉, 사실상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원하지만 상대방으로부터의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미리 관계에서 거리를 둠)을 탐색하고 실제로는 그러한 행동이 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내담자가 인식하도록 조력하며, 궁극적으로는 치유적인 상담관계 안에서 내담자가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응적인 관계행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두 매개변인(성인애착, 관계욕구충족)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남자 참여자들의 경우 애착패턴 중 애착회피만이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과 부적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모두 자신의 관계욕구충족과 부적응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상담 개입 시 성별에 따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특히 관계욕구 만족의 문제를 호소하는 여성내담자를 상담할 때 두 가지 애착차원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즉, 상담자는 남성내담자를 상담할 때처럼, 여성내담자 역시 상대방과의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려는 애착행동이 관계욕구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조력할 뿐 아니라, 욕구와 감정을 과도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밀착하고 매달림으로써 자신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관계행동(애착불안)도 여성내담자 자신의 관계욕구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애착불안이 심한 여성내담자의 관계행동 이면에 내재한 두려움과 소망예,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애정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받고 싶어 함을 탐색하고, 관계에서 건강하게 거리를 두고 관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지를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모두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이 자신의 성인애착패턴(애착회피, 애착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해 보다 깊은 통찰을 원하는 내담자에게는 어린 시절 양육자를 비롯한 주요 타인과의 외상적 관계 경험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경험이 성인인 내담자의 현재 애착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인식하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면서 자신과 타인 및 주변 환경에 대해 어떤 관점(내적 작동모델)을 갖게 되었는지를 탐색하고, 내담자가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면서 관계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했는지를 확인하며, 이 과정에서 내담자가 어떤 두려움과 소망을 갖게 되고 유지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성인으로서 연인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주로 연구자가 지인에게 설문을 부탁하고 그 지인이 다른 지인들에게 설문을 부탁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인에게 설문을 부탁하고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설문에 솔직하게 응답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파트너와 상의하지 않고 각자 설문에 응답하고 밀봉 봉투에 담도록 부탁했지만 서로 격리된 공간에서 설문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파트너의 존재가 설문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거나 온라인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등 표집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구 참여자들의 아동기 정서학대 경험은 정적 편포를 보였는데, 표집과 설문 진행방식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고,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2-30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표집 방식의 다양화와 함께 상담을 받고 있는 내담자 등 아동기 학대 경험 가능성이 높은 임상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결과가 재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주로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 연령, 교육배경,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가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설정했지만, 기본적으로 횡단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종단 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련성 또는 변화 양상을 살펴보거나, 실험 연구를 통해 한 변인의 조작으로 인해 다른 변인에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정혜, 채규만 (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123-139.
- 김득성 (1989). 결혼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85-93.
- 김민녀 (2003).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인혜, 송현주 (2014). 아동기의 정서적 외상과 대학생의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 자기체계 손상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5(2), 65-78.
- 김진화 (2010). 아동기 외상과 성인애착, 데이터 폭력을 관계. 모래놀이치료연구, 6(2), 67-87.
- 나선영, 안명희 (2011). 부모와의 유대가 성인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독립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331-355.
- 박범혁, 정영숙 (2007).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부모와의 애착 및 대학생활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45-57.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안하얀, 서영석 (2010). 성인애착, 심리적 디스트레스, 대인관계문제: 피드백에 대한 반응, 정서적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575-603.
- 안하얀, 서영석 (2011). 성인애착과 Young의 단절 및 거절 도식에 따른 집단 분류와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집단 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43-969.
- 우영지, 이기학 (2011). 여대생의 문화성향 군집에 따른 다중역할계획태도, 성취동기, 자기효능감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2), 405-425.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명희, 김아영 (2008). 자기결정성이론에 근거한 한국형 기본 심리 욕구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157-174.
- 이은지, 서영석 (2014). 불안전 성인애착(애착불안, 애착회피)과 대인관계문제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자기자비와 낙관적 성향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413-439.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조현정, 이승연 (2014).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1), 33-53.
- 조화진, 서영석 (2010).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 성인애착, 대학생활적응,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85-411.
- 최바울, 이은지, 서영석, 백근영, 최바울, 김애란, 왕윤정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50.
- 최성일 (2004). 개정판 부부적응 척도 (Dyadic Adjustment Scale)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교황논집, 35, 97-114.
- 한소영, 신희천 (2007).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다집단 요인분석과 잠재평균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447-465.
- 허재홍 (2009). 개인의 문화성향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존중감과 무조건 자기수용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7(2), 39-54.
- 홍대식 (2005). 결혼의 질과 지속 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67-90.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9). *APA concise dictionary of psycholog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aldwin, M. W., Keelan, J. P. R.,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 (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1), 94-109.
- Bernstein, D., & Fink, L. (1998). *Childhood Trauma Questionnaire: A retrospective self-report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 Bifulco, A., Moran, P. J., Baines, R., Bunn, A., & Stanford, K. (2002). Exploring psychological abuse in childhood: II. Association with other abuse and adult clinical depression. *Bulletin of the Meminger Clinic*, 66(3), 241-258.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am, F. D. (2010).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2.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usby, D. M., Christensen, C., Crane, D. R., & Larson, J. H. (1995). A revi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or use with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couples: Construct hierarchy and multidimensional scal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3), 289-308.
- Cassidy, J., & Mohr, J. J. (2001). Unsolvable fear, trauma, and psychopathology: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considerations related to disorganized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8(3), 275-298.
- Collins, N. L., Guichard, A. C., Ford, M. B., & Feeney, B. C. (2004). Working models of

- attachment: New developments and emerging themes. In W. S. Rholes & J. A. Simpson (Eds.), *Adult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implications* (pp. 196-239). New York: Guilford Press.
- Collins, W. A., & Sroufe, L. A. (1999). Capac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construction. In W. Furman, B. B. Brown, & C. Feiring (Eds.), *The development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pp. 125-14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ok, W. L., & Synder, D. K. (2005). Analyzing nonindependent outcomes in couple therapy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1), 133-141.
- Creasey, G., & Hesson-McInnis, M. (2001).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nflict tactics i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85-96.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Davis, J. L., Petretic-Jackson, P. A., & Ting, L. (2001). Intimacy dysfunction and trauma symptomatology: Long-term correlates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63-79.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Endler, N. S., & Parker, J. D. A. (1990).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coping: A critical eval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44-854.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Feeney, J. A. (1998). Adult attachment and relationship-centered anxiety: Responses to physical and emotional distancing.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189-219). New York: Guilford Press.
- Ferguson, K., & Dacey, C. (1997). Anxiety, depression and dissociation in women health care providers reporting a history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1*(10), 941-952.
- Fraley,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and the suppression of unwanted though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5), 1080-1091.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pp. 77-114). New York, NY, US: Guilford Press.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Gagné, M. (2003). The role of autonomy support and autonomy orientation in prosocial behavior engagement. *Motivation and Emotion*, 27(3), 199-223.
- Hadden, B. W., Smith, C. V., & Webster, G. D. (2014). Relationship duration moderates associ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relationship quality: Meta-analytic support for the temporal adult romantic attachment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8(1), 42-58.
- Huston, T. L., Caughlin, J. P., Houts, R. M., Smith, S. E., & George, L. J. (2001). The connubial crucible: Newlywed years as predictors of marital delight, distress, and divor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2), 237-252.
- Kane, H. S., Jaremka, L. M., Guichard, A. C., Ford, M. B., Collins, N. L., & Feeney, B. C. (2007). Feeling supported and feeling satisfied: How one partner's attachment style predicts the other partner's relationship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4), 535-555.
- Kelly, C., Huston, T. L., & Cate, R. 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of the erosion of satisfaction in marriag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 167-178.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pp. 100-111, 144-150, 170-182). New York: Guilford Press.
- Koball, H. L., Moiduddin, E., Henderson, J., Goesling, B., & Besculides, M. (2010). What do we know about the link between marriage and health? *Journal of Family Issues*, 31(8), 1019-1040.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edermann, T., Macho, S., & Kenny, D. A. (2011). Assessing mediation in dyadic data using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8(4), 595-612.
- Levinson, D. J. (1986). A conception of adult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41(1), 3-13.
-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3), 707-720.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55-364.
- Lopez, F. G., Mauricio, A. M., Gormley, B., Simko, T., & Berger, E. (2001).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problem coping styl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9(4), 459-464.
- Lopez, F. G., Mitchell, P., & Gormley, B. (2002).

-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and college student distress: Test of a mediation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4), 460-467.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Marud, M. P. (2004). Gender differences in stress and coping sty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401-1415.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2), 513-524.
- Mikulincer, M., & Orbach, I. (1995). Attachment styles and repressive defensiveness: The accessibility and architecture of affective memo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17-925.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Nevitt, J., & Hancock, G. R. (2001). Performance of bootstrapping approaches to model test statistics and parameter standard error estimation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8(3), 353-377.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Rice, K. G., Lopez, F. G., & Vergara, D. (2005). Parental/social influences on perfectionism and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4), 580-605.
- Riggs, S. A. (2010).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the attachment system across the life cycle: What theory and research tell u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1), 5-51.
- Riggs, S. A., Cusimano, A. M., & Benson, K. M. (2011). Childhood emotional abuse, attachment processes in the dyadic adjustment of dating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8(1), 126-138.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1), 18-29.
- Ryan, R. M., & Deci, E. L. (2000). The darker and brighter sides of human existence: Basic psychological needs as a unifying concept. *Psychological Inquiry*, 11(4), 319-338.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New York:

- Guilford Press.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2). Attachment-related psychodynamics. *Attachment & Human Development, 4*(2), 133-161.
- Showers, C., Zeigler-Hill, V., & Limke, A. (2006). Self-structure and childhood maltreatment: Successful compartmentalization and the struggle of integration. *Journal of Social & Clinical Psychology, 25*(5), 473-507.
- Simpson, J. A., & Rholes, W. S. (2012). Adult attachment orientations, stress, and romantic relationship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45, pp. 279-328). Burlington: Academic Press.
-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28.
- Stafford, L., Kline, S. L., & Rankin, C. T. (2004). Married individuals, cohabiters, and cohabiters who marry: A longitudinal study of relational and individu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1*(2), 231-248.
- Stein, H., Jacobs, N. J., Ferguson, K. S., Allen, J. G., & Fonagy, P. (1998). What do adult attachment scales measure?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62*(1), 33-82.
- U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2), 179-194.
- Wei, M., Mallinckrodt, B., Russell, D. W., & Abraham, W. T. (2004). Maladaptive perfectionism as a mediator and moderator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depressive mood.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01-212.
- Wei, M., Shaffer, P. A., Young, S. K.,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shame, depress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on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591-601.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Wenar, C., & Kerig, P. (2000).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4th ed.). New York: McGraw-Hill.
- Whitton, S. W., & Kuryluk, A. D. (2012).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depressive symptoms in emerging adults: Cross-sectional associations and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6*(2), 226-235.
- Widom, C. S., Kahn, E. E., Kaplow, J. B., Sepulveda-Kozakowski, S., & Wilson, H. W. (2007). Child abuse and neglect: Potential derailment from normal developmental pathways. *NYS Psychologist, 19*(5), 2-6.
- Woodhouse, S. S., & Gelso, C. J. (2008). Volunteer client adult attachment, memory for in-session emotion, and mood awareness: An affect regulation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97-208.
- Wright, M. O. D. (2007). The long-term impact of emotional abuse in childhood: Identifying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Journal of*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Emotional Abuse*, 7(2), 1-8.  
Zuroff, D. C., McBride, C., Ravitz, P., Koestner,  
R., Moskowitz, D. S., & Bagby, R. M.  
(2017).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  
for interpersonal therapy for depression:  
Between-therapists and within-therapist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4(5), 525-537.

1차원고접수 : 2018. 04. 22.

심사통과접수 : 2018. 06. 24.

최종원고접수 : 2018. 06. 27.

##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yadic Adjustment of Dating Couples: The Mediating Roles of Adult Attachment and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Ha Yan An

Young Seok Seo

Yonsei University

Based on adult attachment theory and literature, the present study set the model representing interplay of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yadic adjustment of dating couples mediated by adult attachment and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and investigated the model by employing actor and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Result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from data of 148 dating couples indicated the hypothesized model fit the data. First, results revealed childhood emotional abuse had actor effects on adult attachment for men; actor effect of attachment avoidance was significant on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and dyadic adjustment on the direct path. Second, results for women revealed that actor effect were presented on the direct path from childhood emotional abuse to adult attachment, from adult attachment to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and from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to dyadic adjustment. Also, women's attachment avoidance had partner effects on men's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and dyadic adjustment. Third, the link between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dyadic adjustment was fully mediated by attachment avoidance and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for men and women.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counseling practice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hood emotional abuse, adult attachment, relatedness needs fulfillment, dyadic adjustment,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